

2024 전문예술지원사업 심사 총평

■ 문학분야

심사위원: 국원호, 손흥기, 하응백

2024년 강릉문화재단 전문예술지원사업에 많은 참여가 있어서 심사위원으로서 매우 고무스러웠다. 하지만 전문예술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들도 있고, 개인적인 취미 수준에서 문학 활동을 하는 지원자도 더러 보여서 아쉬움이 남았다. 강릉 문학을 위해서도 더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강릉 문화재단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듯하다. 그래도 더러 문학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는 지원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학이 우리 시대에도 숨을 쉬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심사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응모자를 모으고, 지원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릉 문화재단에서도 더 많은 사업 선전을 하고, 전문예술지원사업의 형식과 절차도 더 다듬어서 지원자들이 응모를 고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의 지적활동과 예술활동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러분의 문학활동도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개성과 보편성과 표현력입니다. 남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생각도 많이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교적 우수한 내용을 보였으나 지역을 벗어나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분발하시고 남의 작품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전문인력지원사업 심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문학분야 전문인력 자격 미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다 서예(미술), 민속학(사학자) 관련 예술인들의 신정과 출판하고자 하는 작품집 발간 계획이 순수 문학과는 거리가 먼 자연, 환경 다큐 보고서 등의 발간 계획을 제출하셨다. 향후 장르(분야)에 대한 신청 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 시각분야

심사위원: 고충환, 홍경한, 최기

세부사업별로 공모현황을 보면 개인 단제 지원, 원로예술인 지원, 그리고 청년예술가 지원으로 구분된다. 그중 청년예술인 지원 건이 비교적 상위 수준을 유지해 선정에 무리가 없었던 것에 비 해보면 다른 건들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원로예술인 지원 건에 대해서는 건 자제가 별로 없었고 수준도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예술지원사업 시각 분야에 지원한 사업계획들은 전제적으로 예년보다 독창성 및 체계성이 우수 하였습니다. 특히, 청년예술 분야의 지원계획들은 창의적인 기획과 지역문화의 특성을 접목한 우수한 지원사례가 많았습니다.

원로예술 분야의 경우 지원자가 1 명 뿐이라서 향후 많은 원로예술인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홍보 방법을 연구, 실행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2024 년 강릉문화재단 전문예술지원사업에는 다양한 미술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개인, 원로,청년)들이 다수 지원하여 해당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음 .
- 특히 청년예술지원에 대한 젊은 작가들의 호응은 미래 강릉예술발전의 가늠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랄 수 있음.
- 심사기준은 사업주제의 비롯해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계획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 작품의 창의성과 당대성에 대한 측면을 심도 있게 반영함 .
- 해당 지원사업이 강릉 시각예술발전 에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공연분야

심사위원: 김경익, 이나리메, 정도형
전문예술공연 선정작의 경우 선정 단재/개인들의 전문적 예술역량이 더욱 숙성되며 관객들과 공감 가능한 작품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구성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전문성 결여, 공연 지원목적에 어긋나는 작품 등을 배제하였다. 공연의 완성도를 위해 지원이 충분치 않겠으나 관객을 위한 정밀하고 섬세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정년 예술 지원의 경우 단발성, 소모성 공연을 지양하고 향후 정년 예술가들의 작업 방향의 지표가 될 작품이 준비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다년간 지원방식의 도입을 권고하며, 동시대,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예술가와 단체가 늘어나길 바란다.